

한에협 기관지 2001-03
통권167호

La Lanterno Azia
Oficiala Organo de
Korea Esperanto-Asocio

에스페란토

jarkolekto 27 n-ro 167 (3)

marto-aprilo 2001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KEJ estas la estonteco de KEA

짧은 생각, 쉽게 쓰는 글



북한산 소풍(Ekskurso al la monto Bukhan, 2001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La Lanterno Azia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7a jaro n-ro 167 (3)
januaro 2001

jara abonprezo: 11.5 eŭroj(aerpoŝte)

adreso:
Kangbyon Hanshin Core B/D 1601
Mapo-dong 350, Mapo-gu,
121-703, Seulo, Koreio
telefono: +82-2-717-6974
telefakso: +82-2-717-6975
e-poŝto: keast@soback.kornet.net
http://www.esperanto.or.kr/
hitel: keast@hitel.net

Korea Esperanto-Asocio
Landa Asocio de Universala
Esperanto-Asocio ekde 1976
UEA-kodo: keast
Fondita en 31 julio 1920
Reorganizita en 31 aŭgusto 1975
Prezidanto: d-ro LEE Chong-Yeong
Ĝenerala sekretario: LEE Nakkee

편집위원장: 이영구
편집부장: 김형근
편집위원: 김점옥, 신동현, 방명현,
박흥귀, 조명자, 김유영, 김용호

- 기사모집주소 -
lanternoazia@hanmir.com

월간 발행
1975년9월15일 창간

목차 ENHAVO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 3
KEJ estas la estonteco de KEA - 4
Zamenhof-proverboj(3) - 4
짧은 생각, 쉽게 쓰는 글 - 5
'국제어 에스페란토 운동에 관한 프라하 선언' 해설(3) - 6
UEA 회장직을 마치고(2) - 7
Sub la signo de terminologio - 9
Kastelo el Sablo - 11
에스페란토 서당(7) - 12
국내소식 - 13
국제소식 - 14
사무국소식 - 16
한국대회안내 - 17
세계대회안내 - 18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920년 7월 31일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 창립
1976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 국가 지부 가입
1986년 12월 13일 사단법인 승인

고문: 안송산, 이종하, 정환근
지도위원: 강봉길, 김보환, 김용현, 김종태, 김판술, 문용호,
박강, 소중영, 이한의, 황보유안, 홍현락
명예회장: 장충식, 최봉열, 한무협
회장: 이종영
부회장: 박화중, 양옥남, 이낙기, 이종세, 조성호
이사: 김우선, 김유선, 마영태, 박강문, 서진수, 유광수,
이영구, 임한우, 정원조, 나병도, 김유영
비상임이사: 박종훈, 김수원, 김시현, 김정희, 김원식, 김주,
김철, 노원소, 유한철, 이정언, 이종현, 이현희, 이윤보,
전경덕, 조홍준, 조희숙, 최영달, 최홍두, 한덕섭
감사: 이종현, 이길성
대의원 의장: 이종기
청년회장: 김유영
UEA 이사: 이종영(B), 정원조(A)
UEA 한국수석대표: 마영태
사무국장: 이낙기

121-703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빌딩1601호
전화: (02) 717-6974 팩스: (02) 717-6975
전자메일: keast@soback.kornet.net
홈페이지: http://www.esperanto.or.kr/
은행지로: 7622180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신한은행: 623-05-000235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낙 기 (협회 부회장, espernak@unitel.co.kr)

2001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는 3월이다. 3월은 일년 중 가장 중요한 달로서 일년의 성패를 가늠하는 달이다. 우리 에스페란토협회의 입장에서 보아도 한 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나갈지가 가늠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우리 협회도 일반 사회의 한 단체의 범주에 속한다. 우리와 같은 단체나 일반 기업이나를 막론하고 연초의 모습에 따라 일년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단체란 뜻을 같이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집합체이다.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질 좋은 제품으로 고객의 구미에 맞는 생산품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객에게 다가가 판매량을 확대하고, 나아가 확보된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업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시의에 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뛰는 생산직이나 판매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중요한 부문은 이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경영입안자와 관리직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직은 현장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현장의 그들보다도 현장 감각이 더 앞서 있어야 하고 현존의 활동형태에 만족치 않고 늘 미래 지향적인 자세이어야 한다.

나는 종종 우리 협회(우리 운동)를 일반기업 활동과 비교하곤 한다. 어느 의미에서는 기업보다도 더 기업적이어서 한다고 믿는다. 생산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제품의 질은 입증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우리의 판매방법과 노력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운동의 구심체는 협회다. 그리고 협회는 바로 사무국이라고 할 만큼 사무국에 그 임무가 막중하게 실려 있다. 근년의 우리 협회는 그 어느 때 보다는 역량 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시고 있다. 한국 에스페란토운동에서 지금보다 더 역량 있는 분을 회장으로 모셨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현 이종영 회장님은 에스페란토 언어능력이나 에스페란토운동을 향한 집념, 에스페란토계에서의 경륜, 또 사회에서의 경력과 능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협회 재원의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는 기부금 회사에 있어서도 상상을 넘는 거액을 제공한, 그야말로 어느 부분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더하여 우리 운동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리고자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하는 분이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운동체계를 완전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우리 운동이 한 층 발돋움하느냐 마느냐 하는 분수령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의 능력과 의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뒷받침해 줄 실무진이 제 구실을 못할 때 그 의지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협회 사무국의 업무를 단순하게 분류하면, 의례적인 반복업무와, 신규 개발업무로 대별된다. 반복적 업무는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화되어야 한다. 반복적 업무에 연연하다 보면 신규 개발부문은 업무를 낼 수가 없게 된다. 행정업무 담당자는 어느 단체나 기업을 막론하고 윤활유적 자세에 충실하고, 고도의 봉사정신과 업무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을 주위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지난 2월부터 본의 아니게도 사무국을 직접 관장하게 되면서, 나는 우선 해야 할 작업이 업무환경의 쇄신과 능률적인 업무처리의 개발이라고 보아, 우선 컴퓨터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로 하였다. 이는 컴퓨터 전문인 김형근, 김유영 회원의 도움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2월달 기관지 발송작업은 론도아만타 회원들이 자진해서 처리해 주어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이처럼 각자의 능력이나 여건에 맞는 일을 돕고자 성의를 다하는 분들이 있어 더 없이 기쁘고 마음 든든하다. 이런 분위기가 더욱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 우리 협회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회원들 중에 사회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많다는 것이 강점이다. 저마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우리 운동에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 사무국 활동에 있어 회비납입 회원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자 한다.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바란다. 0

KEJ estas la estonteco de KEA

Lee Chong-Yeong (Prezidanto de KEA, lee@esperanto.net)

Organizaĵo estas organa aĵo, kiu estas vivanta. Por tenadi vivon kaj kreski, la vivantaĵo bezonas kontinuan provizon de freŝa sango. Sen la provizado de freŝa sango, neniu organizaĵo povas vivtenadi, nek kreski.

Korea Esperanto-Asocio havas 80-jaran historion. Ĝi viglis, kiam multaj junuloj aktivis por Esperanto-movado. Kaj ĝi velkis, kiam ĝiaj junuloj ne vigle agadis. Preskaŭ ĉiuj aktivuloj de nuna KEA estas iamaj aktivuloj de la Korea Esperantista Junularo.

Junulo estas plena de revo kaj espero por pli bonigi la mondon. Zamenhof estis nur la 3-grada studento de altlernejo kiam li feste kantis kun siaj amikoj la naskiĝon de Esperanto:

Malamikeco de la nacioj Falu, falu jam temp' estas!

La tuta homaro en familio Kunuigu sin devas.

Chung Sa-sob, alinome Dan Tirinaro, estis 28 jaraĝa kiam li verkis kaj eldonis en Parizo en 1938, 『La Liberpoeto』-n, kiu estas ĝis nun la nura Esperanto-poemaro, verkita de koreo, kaj tutmonde konata. Hong Heng-wi, unu el plej brilaj pioniroj de korea Esperanto-movado, havis la saman aĝon kiam li verkis la originalan novelon, *La Pioniroj de Vilaĝo*.

Ni estas en la movado de lingvaj homaj rajtoj kaj internacia frateco. Ni fieras ne nur pro tio ke ni parolas internacian lingvon,

nomata Esperanto, sed pro tio ke ni parolas la lingvon kun amo al internaciaj homoj. *"Ĉiuj ŝatas Esperanton ne tial, ke ĝi alproksimiĝas al homaj cerboj, sed tial, ke ĝi alproksimiĝas al homaj koroj."*

Koreaj gejunuloj havas la mision vigligi kaj kreskigi nian movadon ne nur en Koreio sed ankaŭ en la tuta mondo. KEJ estas la estonteco de KEA! Koreaj gejunuloj havas fierindan mision. Agu kuraĝe kun fiero! □



Zamenhof-Proverboj (3)

16. Brava homo en sia domo.
집안에서(만) 용감한 사람.
17. Ĉe tablo malplena, babilo ne fluas.
식탁이 비었으면 대화가 흐르지 않는다.
18. Ĉe tro ĝentila ekstero mankas sincero
겉으로 너무 점잖으면 성실하지 못하다.
19. Ĉe vulpoj naskiĝas nur vulpoj.
늑대는 늑대를 낳을 뿐.
20. Ĉio havas finon.
영원한 것은 없다

짧은 생각, 쉽게 쓰는 글

김 유 영(청년회 회장, amato@unitel.co.kr)

"Saluton, cxi tie parolas studema, mi tre gxojas auxdi vian vocxon!"

"Saluton!"

천안 대의원님의 전화에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도 한번쯤 귀를 쫓긋 세운다. 평소에 에스페란토로 자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어느 나라 말이나, 누가 쓰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배우기 쉬운가,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를 물어본다. 그리고 마지막엔 "신기하네" 라는 말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신기한 말을 배워보겠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내 주위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 에스페란투요(Esperantujo)를 제대로 즐기려면 시간과 돈, 그리고 언어능력까지 갖추어야 하니, 먹고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판에 에스페란토는 비싼 취미나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비싼 취미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에스페란토 자체가 생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급한 일이 생기면 관심 밖이 되거나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것도 쉽게 이해가 된다. 게다가 이렇게 바쁜 사람들에게 에스페란토는 정말 배우기 쉬운가? 톨스토이는 2시간 만에 읽고 썼다 하고 브라질 출신의 포르투갈어 교수는 배운지 일주일 만에 가르쳤다 하고 12시간이면 기본 문법을 다 끝낸다고 하는데...

누가 뭐래도 에스페란토는 언어이다. 설령 에스페란토가 무지 쉬운 언어라고 해도 모국어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말을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사실이다. 그리고 에스페란투요(Esperantujo)에서 언어는 인격이다. 3월말에 마친 유니텔 초급강습 수료자와의 저녁식사 중에 "에스페란토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선택받으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에스페란토를 배우기 시작한 모든 사람에게 인격까지 저절로 얻게 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인격을 얻고 얻지 않고는 스스로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에스페란토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권리이기도 하다. 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직은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택할 가능

성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에스페란티스토가 에스페란토를 쓰지 않는데 과연 누가 쓸 것이며, 에스페란티스토가 자신의 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가 생각을 대신 해 줄 것인가?

또한 에스페란토는 자발적 취미다. 공허하고, 수동적이기만 한 취미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다. 재미없고 스트레스 받는 취미는 이미 취미가 아니다. 따라서 시간을 쪼개서 가야할만한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어떤 자발적인 모임에서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모임의 사활을 결정한다. 그저 아무 의견 없이 생각도 없이 묵묵히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에스페란투요(Esperantujo)가 한 사람 만의 의견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에스페란토는 '우리'라는 말과 참 잘 어울린다. 우리는 이른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다. 세계시민을 표방하는 우리는 어떤 의견에 대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최선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혹은 우리의 운동이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있다면 그 책임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관심해도 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실은 나는 그다지 쉽지도 않고 엄청난(1)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에스페란토가 좋다. 에스페란토 모임은 찾아다니며 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찾아다니며 가고 싶은 에스페란토 모임이란 에스페란토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다. 나는 에스페란토 배우기를 두 번이나 시작했다. 첫번째는 95년 한겨레 신문의 광고를 보고 서울 에스페란토 문화원의 월례강습에 참가한 것이고, 두번째 역시 이종기 선생님의 권유가 계기가 되었는데, 3년간을 잊고 지내던 98년 여름 유니텔 에스페란토 동호회가 생기면서 소공동(당시 문화원은 소공동에 있었음)을 자주 찾게 되면서이다. 에스페란투요(Esperantujo)에서의 내 작은 바람은 몇 년이 지난 후 이와 유사한 글에서 "나는 에스페란토 배우기를 세 번이나 시작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 두번째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것이다. □

국제어 에스페란토 운동 프라하 선언 해설 (3)

박강문 (대한매일 논설위원, parkk@columnist.com)

3. Pedagogia efikeco

Nur malgranda procentaĵo el tiuj, kiuj studas fremdan lingvon, ekmastras ĝin. Plena posedo de Esperanto eblas eĉ per memstudado. Diversaj studoj raportis propedeŭtikajn efikojn al la lernado de aliaj lingvoj. Oni ankaŭ rekomendas Esperanton kiel kernan eron en kursoj por la lingva konsciigo de lernantoj.

Ni asertas, ke la malfacileco de la etnaj lingvoj ĉiam prezentos obstaklon por multaj lernantoj, kiuj tamen profitus el la scio de dua lingvo. Ni estas movado por efika lingvoinstruado.

3. 학습의 효율성

외국어를 공부해서 능숙하게 쓸 수 있게 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에스페란토는 독습해서도 충분히 제 것처럼 쓸 수 있다.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나면 다른 언어들을 쉽게 배운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다. 학생에게 언어에 대한 이해를 지니게 하는 데 에스페란토가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추천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제2언어를 배워 유익하게 활용하려는 학생들에게 민족어 학습의 어려움이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운동은 효율적인 언어 교육을 위한 운동이다.

민족어 즉, 자연어들은 그것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 아니면 배우기가 어렵다. 문법 규칙이 복잡한 데다가 예외가 많다. 문법이란 결국 약간의 규칙적인 것과 수많은 불규칙적인 것의 범벅이다. 외국어 학습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동사 go의 과거가 goed가 아니라 went이며 child의 복수가 childs가 아니라 children이라는 것에 얼마나 황당해 했는지 생각해 보라. Wednesday, island, often, knight에는 왜 또 발음하지 않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가. 꼭 불규칙한 것만 문제로 내서 학생을 골탕먹이는 일이 영어 시험이다. 다른 외국어 시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언어를 매

개로 해서 지식을 얻자는 목적에서다. 그런데 언어 자체를 배우는 데에 너무 힘이 든다. 중학교에서 대학까지 영어를 10년 동안 공부해도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친다. 또 극성스러운 어른들은 자신들이 영어에 얼마나 혼났던지 자식에게는 유치원 같 나이도 아닌 두어 살에 벌써 영어를 배우게 한다. 지금 한국은 온 나라가 영어 학원으로 꽉 찰 판이다.

에스페란토는 영어를 익히는 노력의 100분의 1만 들여도 익힐 수 있다. 문법이 매우 규칙적이며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규칙성은 에스페란토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어휘는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쉽게 확장해 갈 수 있다. 정해진 어미와 접두어, 접미어를 활용하는 이 방식은 어휘 암기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한다. 기본은 간단하지만 확장성은 엄청난 것이 에스페란토다. sana(건강한)라는 말을 알면, sano(건강), sanulo(건강한 사람), malsana(아픈), malsanulo(병자), malsanulejo(병원), malsanulejestro(병원장) saniĝi(건강하게 되다) 같은 말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에스페란토를 먼저 배우면 외국어를 훨씬 쉽게 배운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에스페란토는 학생들이 겁먹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에스페란토를 배우면서 학생들은 언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공부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운 언어학습으로 주눅들게 할 것이 아니라 에스페란토부터 배우게 하는 것이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자멘호프 박사가 에스페란토를 만들 때에 여러 언어들 가운데서 좋은 요소들을 찾아 그것들을 다듬었다. 에스페란토는 서양 사람들이 본다면 어휘에서 자국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게 마련이다. 동양 사람들은 어휘 쪽에서 그다지 이득을 보고 들어갈 것은 없지만, 가령 한국인의 경우에는 조어(造語)방식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낯설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친근감을 느끼게 되고, 낯선 것이라 해도 기막힌 규칙성과 논리성으로 엮여 있다는 것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에스페란토를 가르쳐야 한다. 교사나 학생 모두가 고생은 덜하고 나중에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국가적으로 볼 때 많은 돈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몇 개 학교라도 에스페란토를 외국어 학습 기초 단계로 활용하는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 □

UEA 외장식(1995~1998)을 마치고 (2)

이종영 (한국에스페란토협회장, lee@esperanto.net)

2. 국제기구에서의 대외 활동

국제기구에 중립적 국제공통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나는 UEA의 대외업무를 자진해서 담당하고, 임시이사회 직후인 1995년 10월 27일에 UNESCO와 EU(유럽연맹)를 관계 임원들과 함께 방문하기로 하였다.

먼저 불란서 빠리에 있는 UNESCO 방문(10월 27일)에서는 유네스코의 파워(Power) 사무차장을 만나고 다음에 담당 부서인 교육개혁국 이삭손(Andri Isaksson)국장, 헬페린(Richard Helperin)중등교육과장, 폴(Joseph Poth) 언어교육담당관을 만나서, 에스페란토 교육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이해증진과 문화교류 촉진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언어교육을 통하여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UNESCO의 “링그와팍스”(Linguapax)사업에 UEA가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삭손 국장(아이슬란드)은 1977년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되었던 제 72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 당시 UNESCO의 음보우(M.Bow)사무총장이 참가했는데, 그때 아이슬란드 UNESCO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에스페란토에 관한 이해가 깊었다.

빠리에서는 에스페란토 창안자 자멘호프(Lazaro Ludviko Zamenhof)박사의 손자인 잘레스키 자멘호프(Louis C. Zaleski-Zamenhof)박사를 만나 저녁을 같이 하면서, “자멘호프의 가문을 이어 주는 것이 자멘호프 박사 후손이 에스페란토계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임”을 강조하였다. (그에게는 출가한 딸만 둘이 있었다).

그 다음날 브르셀에 가서 유럽연맹 보니노(Emma Bonino) 복지후생장관(이탈리아)을 만났다. 급진당 출신인 보니노 여사는 전부터 에스페란토에 호의적인 사람인데 자기는 적극 지원할 것이니 유럽연맹의 다른 장관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다음 해인 1996년 1월 25-26일은 뉴욕에 있는 UN본부를 웨테스(Mark Fettes) UEA 임원회 사무처장 및 그로스만(Rochelle Grossman) UEA 뉴욕사무소장과 함께 방문하였다. UN본부에서는 리에스코(Frederico Riesco) 언어국장을 만나서, UN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그해 7월에 개최할 국제기구에서의 언어문제에 관한 니토베 심포지엄에 UN에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외에 번역과장 및 NGO 과장도 만났다.

그리고 유엔 파견 각국 대사(독일, 핀란드, 체코, 일본)를 만나고 에스페란토에 호의적인 NGO(세계 UN 협회, 세계평화기도회, 바하이 국제본부, 세계연방운동, 종교평화세계회의, 급진당)의 대표들을 만났다. 이번

UN 방문의 주목적은 “국제기구의 언어문제”에 관한 니토베 심포지엄에의 참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이때 세계 각국에 회원을 가진 모든 국제적 NGO들이 각기 목적은 달라도 회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다 같이 언어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파악되어서, 이 NGO들의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거기서 나온 생각이 UN에 소속된 NGO들을 합쳐서 UN에서의 언어문제 개선에 하나의 압력단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 다음해인 1997년 5월 8일 뉴욕의 UN본부 부근에 있는 “UN 프라자” 회의실에서 언어문제의 개선을 위한 NGO세미나를 UEA 주최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급진당, 국제바하이기구, 세계연방주의운동본부 등 8개 NGO가 참석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끝에 “국제보조어를 위한 UN 비정부조직 연대”(Koalicio de UN Ne-Registaraj Organizaĵoj por Internacia Helplingvo)가 당일날 결성되었다. 그 첫 사업으로 영어, 불어, 에스페란토로 된 [소식지]를 발행하기로 하고 그 책임을 UEA가 맡기로 하였는데 뉴욕에 있는 메드라노(Jim Medrano)씨가 그 편집을 맡았다. 그 소식지 첫 호는 편집인 사정으로 좀 늦게 나왔는데 (1998년 3월) 급진당이 UN에 국제어 보조어 문제 토의를 요구한 것, 바하이교가 UN창설 50주년을 맞이하여 UN에 국제보조어 채택을 요구한 것, 뉴욕 타임즈와 CNN 텔레비전 방송에 에스페란토 관련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는 이야기 등이 게재되었다.

이 무렵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였다. UN과 UNESCO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비정부단체를 중요도에 따라서 몇 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때까지 UEA는 “자문관계”(Consultative Relations)로 분류되어 있어서 UN과 UNESCO의 각종 중요한 행사에 초청받고 옵서버로서 회의참가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등록된 비정부기구의 수가 많고 그 중에는 휴면 상태에 있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UN과 UNESCO에서 소속 비정부기구를 재정비하였는데, 그 결과 UNESCO가 UEA를 한 등급 낮은 “수시단체”(ad-hoc)로 재분류하도록 추천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UN으로부터도 UEA를 “등재관계”(Roster Relations)기관으로 재분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것은 과거 수년간 UEA에서는 대 UN관계를 소홀히 하여 연차보고서 제출도 때로는 태만히 하고 접촉도 계속 아니 하였기 때문이었다. UN기구는 행정이 느리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누적된 결과를 내가 회장으로 재직할 때 통보한 것이다. 이것을 시정하려면 수년이 소요되는데 회장의 임

등

기는 3년이므로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했다.

우선 UNESCO에는 재심을 요청하는 4 쪽짜리의 편지를 보내고, UEA임원 예고로바스(Jegorovas)변호사가 친구인 유스케비치우스(Juskevicius) UNESCO 사무차장에게 전화를 한 후, 빠리에 있는 UEA의 UNESCO 담당 데스피니(Barbara Despiny)박사를 시켜 유스케비치우스 사무차장을 직접 만나도록 하였다. 여기에 UEA의 오스모 볼러(Osmo Buller)사무총장을 동행하도록 하는 등 일련의 결과로 약 1년 후에 UNESCO에서는 UEA를 "실무관련기관" (Operational Relations)으로 격상시킨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한편 UN에는 지금까지의 UEA 활동상황을 설명하면서 재심요청서를 작성하여 UN NGO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동시에 UEA의 활동을 알리는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UEA 뉴욕 사무소의 그로스만 여사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해 5월에 UN NGO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내가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하고 문의에 답하였다. 그 결과, UEA를 "특별자문기구"(Special Consultative Relations)로 격상시킨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로써 그 두 가지 돌발사태가 해결되어서 안심하였다.

전문자문기관이란 전문적 문제(언어문제)에 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인데 UN회의에 초청을 받고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으며, 500자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UN에서는 이것을 전체 회의참가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권한이다.

3. 리투아니아 대통령 및 중국 국무원 방문

1) 리투아니아 대통령 방문

1996년 3월 하순, UEA본부에서 개최된 연례 임원회의 직후에 리투아니아를 방문하도록 UEA 임원 예고로바스 변호사(리투아니아 에스페란토협회 회장)가 주선을 해서 4월 1일-4일까지 리투아니아를 방문하였다. 리투아니아는 작은 나라지만, 에스페란토 창안자 자멘호프 박사의 처가가 제 2의 도시 카우나스(Kaunas)에 있어서 자멘호프 박사가 한 때 거기에 살았고, 그 집이 그대로 전해져서 지금은 리투아니아 에스페란토협회 사무실 겸 에스페란토 도서관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가 많이 알려져 있고 정치가들 중에 에스페란티스토가 많다.

4월 2일에 이름난 시인인 문화부장관 네크로시우스(Nekrosius)씨를 만나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향하는 에스페란토정신을 설명하여 공감을 샀다. 그 결과 1996년 7월 프라하에서 열릴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 리투아니아 예술단 파견을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오후에는 교육과학부장관 다몰카스(Damorkas)박사를 만나 교육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에스페란토의 언어교육적 가치를 검증하는 실험교육안

을 설명한 결과 그러한 실험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리투아니아 에스페란토협회에서 세부사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회를 방문하여 5명의 국회의원들과 회의형식으로 대담하였다. 리투아니아가 곧 EU에 가입하는데 거기서 에스페란토가 공통보조어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들 찬성하였다.

그 다음날은 리투아니아의 브라자우스카스(Algirdas Brazauskas) 대통령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몸집이 크고 정치인다운 풍모를 지닌 미남이었다. 인사를 나눈 후,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명함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돈을 버는 명함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다음에 UEA회장 명함을 주면서 "번 돈을 여기에 씁니다"라고 했더니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그리고 "나의 전공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오늘도 대통령님께 에스페란토를 팔러 왔습니다"라고 서두를 꺼냈더니 브라자우스카스 대통령은 "어디, 팔아보세요"라고 응수하였다. 약 30분간의 면담 후에 대통령은 "에스페란토를 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값으로 "에스페란토의 벗"(Amiko de Esperanto)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배석했던 기자를 통하여 이 이야기가 그날 저녁에 전국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전국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이제는 대통령이 "우리의 벗"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다음날 들었다. 다음날은 역사 깊은 빌니우스(Vilnius)대학 총장을 방문하여 에스페란토 교과 도입문제를 논의하고 저녁에는 약 30명의 에스페란티스토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귀국에 4월 5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들어서 폴란드 방송국 에스페란토과장 페틴(Andrey Pettyn)씨의 주선으로 자멘호프 박사 묘지를 참배한 후, 폴란드 방송국 부국장 예즈예우스키(Jedrzejewski)박사를 만나 폴란드 방송이 하는 에스페란토방송의 전세계적인 위력에 대해 설명하고 계속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폴란드 라디오 에스페란토방송 37주년을 기념하여 1시간 동안 특별대담방송을 하였다.

2) 중국 국무원 방문

1996년 8월 21-25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 1차 아세아 에스페란토대회에 참석한 후 별도로 상해시 인민대위원회 상임위원장(상해시 의회의장에 해당) 예공지(葉公琦)씨를 만나 에스페란토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경으로 가서 국무원 외사처장 마준루(馬俊如)씨를 만났다. 나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재직할 때 1981년부터 매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농산물유통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9월 중국정부(국무원)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 "우의장"(友誼獎)을 받은 바 있다. 그 때 국무원의 마준루 외사처장과 자주 접촉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경에서 마 외사처장(차관급)을 만나, 세계의 새로운 언어질서 수립에 중국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중국 외국어 출판사 부사장과 중국 국제방송국 부국장을 만나 에스페란토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였다. (다음에 계속)

Sub la signo de terminologio

Rubeno Fernandez Asensio (Hispanio, rubeno@usitmail.com)

La stato kaj estonteco de la Internacia Lingvo Esperanto. Prelegkolekto de la unua simpozio de la Akademio de Esperanto, kiu okazis en Prago 1994-7-7/14.
Redaktis: Petr Chrdle. Eldonis: Kava-Pech, Prago, 1995.

En la heroaj tempoj de Esperanto ekzistis organo, la Lingva Komitato, de ĉiuj mallaŭdata ĉar ne konsentis al la miloj da reformproponoj de ĉiu flanko starigataj. Kvankam tiaj herezaj tendencoj ne plu ekzistas, ĝia posteulo, nia Akademio, daŭre pacienas la samajn kritikojn pri nenifrado. Sukcesinte respektigi la netuŝeblan Fundamenton, ĉu ĝi ne kontentigas la novajn bezonojn de la terminologio?

Sed, ĉu fakte temas pri novaj bezonoj? Ĉu fakvortoj estas nur lingva lukso? Jam en la Unua Libro Zamenhof mem plendis pri la konfuza lingvomiksigo ĉe multlingveco kaj antaŭvidis por la Internacia Lingvo privilegian rolon de aksolingvo por ke la naciaj lingvoj povu harmoniiĝi, "ellaboriĝadi kaj perfektigiĝadi". Li tamen ne volis persone altreni tiun respondecon, kaj en 1911 profetis ke la Lingva Komitato iam ellaboros la faman "Plenan Vortaregon". Tian taskon provis plenumi antaŭ 70 jaroj la komitato sed unu sola homo, Eugen Wuster. Detlev Blanke malkovras en ĉi tiu kolekto ĝis kiu punkto la giganta dulingva Enciklopedia Vortaro de Wuster, kvankam neniam fineldonita kaj malmulte konata, restas ankoraŭ nun ne superita en Esperantio, kaj kiel ĝia aŭtoro profitis de tiu sperto por fondi la sciencajn principojn de terminologio nun tutmonde agnoskataj.

Tiujn principojn, kaj ilian aplikon en Esperanto klarigas Rudiger Eichholz, iniciatinto de la

Esperanta Bildvortaro kaj de Pekoteko, la kolekto de duboj kaj proponoj pri terminoj starigata per konsultoj de la lingvuzantoj mem. Kvankam laŭdinda entrepreno, ĝi tute malsukcesas: la Akademio neniam respondas la demandojn. Malgraŭ la plendo de Eichholz kontraŭ facilanimaj vortaristoj amatoraj (aŭ eĉ profesiaj) kiuj sen ia aŭtoritato sankcias pseŭdoficiale siajn privatajn elektojn, la urĝeco de la terminbezonoj pelas lin al tro personaj proponoj kiel enkonduko de novaj afiksoj. Eichholz prave asertas ke kunlaboro interfaka estas la sola solvo kontraŭ malunuecaj aŭ maltaŭgaj terminelektoj, kaj klopodas varbi persone kunlaborantojn, sed ĉu tiel eblas kunigi sufiĉe vastan fakularon?

Kial Esperanto, iam la pionira lingvo en normigo de fakvortoj, nun estas subevoluinta lingvo en tiu kampo? Werner Bormann revuas la terminologian panoramon en Esperanto kaj diagnozas plurajn malsanojn, kaj ĉe la publiko kaj ĉe la decidinstancoj. Kiel Wuster, li opinias ke la natura vojo de popola uzo antaŭvidita de Zamenhof kaj defendata de multaj akademianoj nur validas por komunaj vortoj: temante pri fakvortoj, pli gravas la unueco de vortelekto, eĉ se arbitra, kiun fari rajtas nur la Akademio. Kiel supera lingvinstanco, ĝi kulpas pri la ĥaosa stato de niaj terminaroj; ĝian malkompetentecon kaŭzas jeno, ke la plimulto el la akademianoj estas ne sciencisto sed beletristoj, kiuj kredas tiun institucion simpla honora klubo. Malgraŭ la simpatia poemo per kiu Eli Urbanova kontribuas al ĉi tiu eseokolekto, bone evidentiĝas tiu amatoreco de la beletristoj en la prelego de Jean Thierry: kiun esperantiston interesas liaj apokalipsaj grumbladoj pro la detruigo de la franca kulturtradicio? Sed ankoraŭ pli malkonvena, eĉ insulta, estas la konkluda

kontribuo de la prezidanto mem de la Akademio kaj iniciatinto de la simpozio, Andre Albault: por ĝuste prononci fremdajn nomojn el latinliteraj skriboj, li pretendas en sia vorto-laksa parolado ke ĉiu esperantisto lernu la ortografi-regulojn de CXIUJ lingvoj el la mondo! Bonege resumas la arogantan francan pedantecon tiu ĉi sarkasma devorifuzo: "Al tiuj, kiuj opinius [...] ke estus pli bone [...] ĉion jam de nun asimili al Esperanto, do al tiuj mi sincere kaj tutkore deziras bonan sukceson. Kiam ILL (mia emfazo) kapablos unue kompili, due eldoni en Esperanton plurvoluman enciklopedian vortaregon [...] tiam, kaj nur tiam, ni povos konkrete revizii niajn opiniojn." (p. 188)

Ĉi tiun bedaŭrindan situacion kiel eblas renversi? Se Wuster malsukcesis pro eldonaj malfaciloj, parto de la problemo estas do pure ekonomia, kiel avertas Bormann; kaj tial la entreprenistaj spertoj de Petro Chrdele estas bonvenaj. Laŭ li, se la esperantaj merkato kaj fakularo tro malgrandas, necesas malfermi ilin al kunlaboro kun alilingvaj koncernatoj: pli facilas enŝovi Esperanton en multlingvan terminaron ol vendi esperantan faklibron, kaj ĝia uzo kiel nur apuda helplingvo pli efikas kaj varbas ol kiel sola laborlingvo de konferencoj aŭ fakkunsidoj. Ankaŭ atentigas pri la bezono de profesiaj interpretistoj por ke Esperanto rolu kiel pontlingvo (la konata projekto RELAIS) , sed ankaŭ kiel oficiala laborlingvo mem, danke al duoblaj interpretadoj.

Tiujn ideojn pravigas la ekzemplo de Karl-Hermann Simon: la verkado per internacia fakula kunlaboro de Lexicon Silvestre, en 30 lingvoj, la unua internacia terminaro pri arbaro-scienco. Ĝi montras ankaŭ ke tiajn projektojn esperantistoj mem devas iniciati, ĉar pro siaj senegalaj kvalitoj Esperanto estas ilia ideala gvidlingvo.

Eĉ pli rava estas la iniciato de Wim De Smet, digna posteulo de Wuster pro sia kapablo kuraĝi pli ol siaj nacilingvaj kolegoj. Lia Nova Biologia Nomenklaturado bone ilustras kiel atako estas la

plejbona defendo: dum ĵardekoj la sciencoj trudis sian grekolatinan terminaron en Esperanton difektante ĝian vortofaran regulecon, kiel plendas Michel Duc Goninaz en sia prelego, aŭ ĝian semantikan ĝustecon, laŭ la kontribuo de Judith Jackson; nun tamen spertaj biologoj-terminologoj intencas anstataŭigi la tradician biologian nomenklaturon kreitan de Linneo en la 18a jarcento, jam kadukan kaj maltaŭgan por la nuna biologio, per tute nova nomenklaturado, pli klara, sistema kaj facile prononcebla, kreata per eluzo de la lingvaj eblecoj de Esperanto. Vere ne estas malprave antaŭvidi ke baldaŭ ĉiuj biologoj el la mondo renomos "Hundo ordotipa" sian antaŭan "Canis familiaris", ĉar ja ĝuste laŭ neesperantistoj ne ekzistas vera diferenco inter morta lingvo kaj artefarita lingvo: La sukceso de la Asocio por Enkonduko de Nova Biologia Nomenklaturado devas esti modelo por la esperantaj terminologoj: difinita celo, specialeco, membraro kaj esperantista kaj neesperantista, volontula laboro sed ankaŭ membrototizo, labordivido inter vortfaraj kaj sankciaj komisionoj, kunlaboro inter sciencistoj kaj terminologoj, samlandeco kaj oftaj kunvenoj de la estraro...

La NBN tamen uzas Esperanton por neesperantistoj, kaj ne sendevigas nin krei komunlingvajn nomojn por naturspecioj kaj multegaj aliaj aferoj, kiel klarigas la zoologino Judith Jackson. Ŝi kaj ŝia edzo Ian Jackson alportas sian sperton pri hejma uzado de Esperanto kaj avertas ke la fakeco de terminoj estas nur ŝajna, ĉar baldaŭ eniras la ĉiutagan vivon, kiel bezonataj hejmvortoj, ne kiel profesiaj ĵargonoj: pensu ekzemple pri la medicinaj vortoj aŭdataj en hospitalo, aŭ pri la modo, aŭ pri la turism-ekonomiaj vortoj bezonataj en vojaĝagentejo. Ili ne mankas nur al specialistoj, sed al ĉiuj veraj uzantoj de la lingvo. Ĉiuj do bonvenigu ĉi tiun stat-raporton de la Akademio pri tiu urĝa problemo. □

Kastelo el Sablo(모래城)

de Verda E. Kim(岸曙 김억)

Mi ne scias la kialon, sed tre ofte mi memoras la tagojn, en kiuj mi ludis kun la najbara amiko, kiam mi estis knabo ĉirkaŭ dekjara.

Unu tagon ni iris al la marbordo, tie ni havis tre agrablajn petoladojn, tamen ni ĉiuj ne sciis la kaŭzon, ĉu la vetero estis bela kaj ĉarma, aŭ ĉu nia koro fandiĝis en unu rondan ĝojon. Post bela petolado ni senvole komencis konstrui kasteleton sur la sablejo, ĝi estis tre bela kaj ĉarma, ĝi tre plaĉis al ni ambaŭ.

"Al mi tiu ĉi apartenas." tiel subite diris mia amiko, kvazaŭ ne volus al mi eĉ tuŝi ĝin. Mi ne konis kialon.

"Ne, vi eraras. Tio ĉi ja estas mia." mi kontraŭstaris. Kaj baldaŭ inter ni eksplodis disputo. Li insistis; li estis la unua proponi ĝin fari, kaj tial ĝi devas esti lia. Sed ankaŭ mi ne cedis, respondante ke mi laboris pli multe ol li. Tiel ne venis la disputo al la fino; pasis minutoj mute. Ni perdis horon en la disputado. Dume ni ambaŭ sentis ektuŝon iom malvarman ĉe la piedoj. Ni senvolaj direktis okulojn malsupren. Kia surprizo! Jam la ondoj alfluis kaj kantetis ĉe la piedoj nudaj. Samtempe ni trovis, ke la ondoj disglutis la kasteleton kaj forflugis ĝin, eĉ ne lasinte ian postsignon. Vere kruelaj estis la ondoj; ĉu ni jam forperdis la ajon pridisputian?

Tute blindaj por la afero, la ondoj, kvazaŭ venkinto, kantis kaj dancis, ŝajne ili nin mokadis pri la malsaĝeco.

Kun bedaŭro min rigardis mia najbarulo, responde mi lin rerigardis per la samo. mute starinte ni ambaŭ nur jetis senvolajn rigardojn al la fora marebenaĵo, tie ondoj saltis nigre, turniĝis senĉese. Ni disiĝis senvorte, portinte pezan malpacigon en la koro. Tiam mi ne komprenis kialo, sed nun la samon tre ofte mi trovas en la mondo. □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나, 가끔 나는 지나간 날, 열살 갓 넘은 소년 적에 이웃 동무와 놀던 일이 생각난다.

하루는 우리가 해안으로 갔다. 거기서 대단히 재미있고 기쁘게 놀았다. 그러나 우리는 둘이 다 그 이유를 몰랐다. 일기가 하도 아름답고 좋았던 탓이었는데, 또는 우리들의 마음이 즐거움에 폭 녹아 버렸던 까닭인지 그 이유를 몰랐다. 한동안 놀다가 우리는 무심히 모래밭에 성을 쌓았다. 그 성은 아름답고 고왔다. 대단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그건 내 거야" 갑자기 동무는 말을 하더니 조금이라도 성을 다쳐서는 안 된다는 듯한 태도를 하였다. 나는 그 까닭을 몰랐다.

"아니다 내가 잘못이다. 이것은 내 거다" 나는 반대하였다. 오래지 않아 우리들 사이에는 논쟁이 폭발되었다. 맨 처음에 성을 쌓자고 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라고 동무가 주장하면, 나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너보다 힘을 더 들였으니 아니라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논쟁은 끝나지 않고 말없이 시간은 가서 한 시간이 달아나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은 발가락이 산뜻한 것을 느꼈다. 무심히 발가를 내려다보는 우리는 놀랐다. 물결이 밀려들어 발가에서 노래하지 않던가. 같은 때에 물결은 모래성을 삼켜 버리고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 패심한 결말이다. 우리는 논쟁할 거리를 잃어버리고 말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조금도 모른다는 듯이 물결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듯 싶었다.

분하다는 듯이 동무녀석이 나를 바라보기에 나도 그렇다고 마주보았다. 우리는 잠자코 서서 저 먼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물이 검게도 뛰고 희게도 굽이 돌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슴에 불화를 안은 채 흠얼어지고 말았다. 그때 나는 그 이유를 몰랐더니 지금 와서 그와 같은 현상을 가끔 이 세상에서 발견한다.

Tiu ĉi estas esperante verkita, kaj dulingve aperigita de Verda E. Kim en la gazeto Samĉoli(feb. 1932). '岸曙 김억이 두 언어로 발표한 이 작품을 삼천리(1932년 2월호)에서 전제합니다. <redaktoro>

에스페란토 書堂 [7]

11-13. **La Majstro diris: "Dum vi ankoraŭ ne scias, kio estas la vivo, kiel vi povas scii, kio estas la morto?"** 未知生[미지생]이면 焉知死[언지사]리오.

11-16. **Transiro estas same malbona, kiel neatingo**
(해설) **trans-ir-o** 지나쳐 감, 목적달성을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을 쓰는 것. **same A, kiel B. B**와 마찬가지로 **A**하다. **ne-atingo** 도달 못함. 過猶不及[과유불급] 이니라.

11-22. **Zilu demandis: "Ĉu mi devas tuj plenumi tion, kion mi aŭdis?" La Majstro respondis: "Kiel vi povas tiel agi, dum ankoraŭ vivas viaj patro kaj pliaĝaj fratoj, kiujn vi devas konsulti?"**

(해설) **Zilu** 子路[자로] 공자의 제자. **plenumi** 수행하다. **tion, kion mi aŭdis.** 내가 들은 것을. **pli-aĝa frato** 형님. **konsulti** 상의하다. 子路門[자로문], 聞斯行諸[문사행제]리잇고. 子曰[자왈], 有父兄[유부형]이 在[재]하니 如之何其聞斯行之[여지하기문사행지]리오

12-2. **Kiam vi eatas for el la hejmo, kondu tu al ĉiu kvazaŭ vi akceptus honoran gaston; kiam vi laborigas la popolon, agu tiel kvazaŭ vi asistus ĉe granda oferado; ne faru al aliaj tion, kion vi ne dezirus fari al vi mem; ne havu plendemon en la regno, nek en la familio.**

(해설) **for el~** ~로부터 멀리 떨어져. **kondu ti** 행동하다. **labor-ig-as** 일을 시킨다. **tion, kion vi ne dezirus** 내가 원하지 않을 듯한 것을. **plend-em-o** 불평, 원망. **regno** 나라, 국가. 出門如見大賓[출문여견대빈]하고, 使民如承大祭[사민여승대제]하며, 己所不欲[기소불욕]을 勿施於人[물시어인]이니, 在邦無怨[재방무원]하며 在家無怨[재가무원]이니라

12-4. **La noblulo havas nek maltrankvilon, nek timon. Kiam interna memekzameno malkovras nenion malbonan, kio do estas maltrankviliga kaj**

kio do estas timinda?

(해설) **mal-trankvilo** 불안. **timo** 겁. **mem-ekzameno** 스스로 검토하는 것. **mal-kovras** 발견하다.

mal-trankvil-ig-a 불안하게 하는. **tim-ind-a** 겁낼만한

君子[군자]는 不憂不懼[불우불구]니라, 不憂不懼[불우불구]면 斯謂之君子矣乎[사위지군자의호]리잇고, 內省不疚[내성불구]이니 不何憂何懼[불하우하구]리오.

12-7. **La necesaj kondiĉoj de regado estas sufiĉaj nutraĵoj, sufiĉaj armiloj kaj la fido de popolo al la reganto.**

(해설) **reg-ad-o** 통치, 다스림 **nutr-aj-o** 영양분, 식품 **arm-il-o** 무기, **fido** 신임 **reg-ant-o** 통치하는 사람. 통치자. 足食足兵[족식족병]이면 民[민]이 信之矣[신지의]니라. 口

PIV 예약 주문

PIV(에스페란토 대사전)가 발행된지 30년만에 전면 개정 작업을 거쳐 곧 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작업에만도 10년 가까이 걸린 대작입니다.

발행자인 **Sennacieca Asocio Tutmonda(SAT)**에서는 발행비용 마련을 위해 예약주문을 받습니다.

예약가격은 (송료 별도) 개인 60 유로 단체 (**libroservo**) 50 유로이고 발행 후 정상 판매가는 70 유로입니다.

우리 모두 이용해야 할 사전이므로 예약 주문을 통하여 책도 싸게 사고 발행도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대금 지불 방법

우체국: **la poŝtkonto de SAT n-ro 1234-22**

K. Parizo

UEA의 **SAT**계좌에 납입: **satx-s (kun la indiko, antaŭpago por nova PIV).**

자세한 문의는:

Kreŝimir Barkoviĉ (ĝen.sekret.)

67 av. Gambetta FR-75020 Paris

satesper@cybercable.fr

유니텔 에스페란토 동호회 신년모임

유니텔 에스페란토 동호회(대표시삽 : 이성우) 주관으로 유니텔 에스페란토 신년모임이 2월 22일 오후 7시 에스페란토 문화원에서 있었다. 최근 새로 가입하신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외국 에스페란티스토들과의 즐거운 대화로 남몰래 같고 닦았던 에스페란토 실력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새로 개편할 메뉴와 담당 운영진들과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나누어 앞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수원 지부

2월 28일 오후 7시 수원 지부 정기 월례회가 있었다. 13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으며 이낙기 부회장과 이종기 원장도 자리를 함께 하였다.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원 에스페란토 가족들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더욱더 에스페란토 사랑과 정보의 교류에 자극이 되었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

회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회원들끼리 학습모임을 자주 갖자.
2. 청도남강학교와 같은 합숙모임을 서울지역과 연계하여 수원인근에서도 개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3. 외국인의 방문을 적극 추진하여 회화학습과 외국인 관계유지에 힘을 기울이자.
4. 각종 공고(예-합숙소식 등)가 수원에 빨리 전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5. 합숙모임에서는 아이들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부들의 참석을 적극 돕자.
6. 어린 자녀들에게 에스페란토를 심어주자.
7. 각종 대회나 모임에서 바자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8. 합숙교육의 내실을 기하자.

그밖에도 많은 발전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에스페란토 연구동호회

한국 수자원공사 에스페란토 연구동호회는 2000. 9. 28 설립되어, 작년도 하반기 130건의 게시실적(33개 연구동호회 중 3위), 초급강의 2회(10월, 11월), 합숙 1회(계룡산 민박집, 1박2일), 특강(강사: 서울에스페란토문화원 이종기원장님), 일본 월년합숙(회원 6명) 참가 등의 활동을 하였다. 금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E-연구동호회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애정 어린 충고와 사랑을 부탁한다.

- 한국수자원공사 에스페란토 연구동호회장 김종광 (Superviro)- <superkim@kowaco.or.kr>

시티 라이프에...

매일경제에서 매주 발간하는 문화정보지 '시티 라이프'(2월22일자)의 각종 문화원 소개 난에 '에스페란토 문화원'이 이종기님 사진과 함께 소개되었다.

협회사무실을 산뜻하게 꾸몄습니다

마포동 협회사무실을 산뜻하게 꾸몄습니다.

회의장 겸 강의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여 사무공간과 구분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설계(?) 했는데 아직 칸막이(파티션)를 못 구했습니다. 정리 정돈과 함께 대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각 나라 잡지들을 월별로 묶어서 읽기 편하도록 진열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협회 사무실이 되도록 연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사무국 올림.

단국대 269명 수강

2001학년도 1학기 단국대 에스페란토 강의에 총 269명(서울 93명, 천안 176명)의 학생이 수강등록을 마쳤다. 학기 후 수강생 모두가 훌륭한 에스페란티스토가 되길 기대한다.

이사벨고 에스페란토반 소식

저희 학교가 올해부터는 남녀 공학으로 바뀌어 남학생들도 신입 회원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1학년 신입생 22명을 포함한 전체회원 수는 54명입니다. 처음으로 남학생들이 들어와 에스페란토반의 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신입생들이 에스페란토에 대해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중 에스페란토반이 있는 학교는 서로 연락하여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만들어 어린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에스페란토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학교는 다음주부터 방과후 매주 2시간 정도 에스페란토 강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앞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갈 에스페란토의 새싹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사벨 동산에서, 박준호

슬로베니아: 국제 에스페란토 영상제

작년 10월 30일, 슬로베니아 **Maribor**에서 개최된 제 4회 국제 에스페란토 영상제에 3명의 작가로부터 6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1등 상으로는 벨기에 작가 **Hedwig Igne Van Der Bruggen**씨가 히말라야 **Kagbeni**지방을 다룬 기록 영화에 주어졌다.

금년 9월말에 개최될 제 5회 국제 에스페란토 영상제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Maribor** 에스페란토 협회로 9월 10일 까지 영화필름을 보내주기 바란다.

주소: **Besednjakova 1, SI-2000 Maribor, Slovenio**

오스트리아: AEF 사무국 이전

오스트리아 에스페란토 연맹(AEF)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연맹 사무국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에스페란토 운동(AEM) 본부로 옮기게 되었다. 이에 AEM은 AEF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AEM이 AEF와 연합하여 화합으로 임하는 첫 사무로는 2001년부터 출판할 잡지 발행이 될 것이다.

AEM □ **Margaretengurtel 100/11/2, AT-1050 Wien.**

중국, 스위스: 에스페란토 강의 후원

스위스 취리히시는 중국 **Kunming**시에서 기획하는 많은 프로젝트를 이미 여러 해 동안 우호적으로 후원하고 있지만 중국 **Kunming**시 에스페란티스토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있는 취리히 에스페란토 협회(ESZ)를 제외하고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동반자 관계이기보다는 공식적이고 상업적인 교류에 불과한 형편이다. ESZ는 **Kunming**시에 사는 소수 민족들과 관광 안내자들을 대상으로 에스페란토 강습회를 후원하고 있다. ESZ는 설립된지 95년 만에 처음으로 회원수가 60명을 넘어서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대학에서 에스페란토 강의

폴란드 **Gostyn**시 대학에서 **Halina Radola**씨가 지도하는 에스페란토 강의에 수강생이 독일어 수강생보다 훨씬 많은 40명에 달한다. 폴란드 의원 **Zbigniew Kulak**박사가 에스페란토 교육을 강력히 지지함으로써 그 강좌가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Jozef Gerowski씨에게 축하메시지로 많은 격려 바란다.

주소: **Dyrektor Gimn. W Gostyniu, ul. Hutnika 3, PL-63-800 Gostyn, Pollando**

이메일: **gigostyn@poczta.wp.pl.**

프랑스: 유럽 에스페란토 문화원

지난 10월, 프랑스 에스페란토 연맹 간부들은 'Progreso 2001'이라는 표어로 금년부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앞으로 2년 간 지속될 'Progreso 2001'을 위한 세부 사항은 캠페인에 동참할 각 협회 대표자들이 곧 토론을 갖고 결정한다.

최근에 있었던 **Kulturdomo Gresillon** 위원회에서 프랑스 에스페란티스토 문화원(Kulturdomo de Francaj Esperantistoj)의 명칭을 유럽 에스페란티스토 문화원(Kulturdomo de Eŭropaj Esperantistoj)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러자면 정관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다음 총회에 안건제출을 하기로 하였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이 문화원 정보지에 관심있는 분은 연락 바란다. □ **kastelo.gresillon@free.fr**

새 이름과 함께 새롭게 단장될 **Kastelo Gresillon** 문화원에서 6~15세의 초보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적 만남을 4월14~21일에 마련할 예정이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회비는 약122프랑이다. 많은 참가 바란다.

주소: **Elisabeth Barbay, 25 allée Gabriel Faure, FR-93140 Bondy**

전화: +33/1/48-47-23-87, **Eliz.Barbay@wanadoo.fr.**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에서 에스페란토 홍보

'Davos 경제포럼'에 대응해서 조직된 '세계 사회포럼(Monda Socia Forumo)'이 1월 25~30일 **Porto Alegre**에서 있었는데, 수천의 비정부단체 대표자 약 3000명과 1만 여명의 다른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그곳 청년 캠프의 몇몇 책임자들만이 에스페란토에 대해서 조금 알고는 자기나라 이름표시에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것이 고작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페란토가 사라진 언어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에스페란티스토 **Gerard Paing**와 **Henryka Olek**는 녹색당에 가입하고 그들 당원들과 현지 에스페란티스

토들을 동원하여 에스페란토 강좌 광고지를 배포했다.

라디오 방송국 **Rio-de-Janeiro**에서는 2월 한달 동안 매주 일요일 아침에 **Sylla Chaves**씨 진행으로 에스페란토 강좌 '**Aŭdu kaj Lernu**' 를 방송하였다.

☐ linguadafaternidade@bol.com.br

독일: 에스페란토 가족들의 송구영신 모임

12월 27일~월 3일, 독일 **Trier**에서 열린 제17차 국제 페스티벌(IF)에 200명 이상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참가했다. 특히 약 300명의 에스페란토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Familia Esperanto**(에스페란토 가족)동아리 설립자인 **UEA** 임원 **Amri Wandel**씨가 에스페란토와 어린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모태 에스페란티스토는 에스페란토와 그 운동에 대해 달리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에 언어학자 **Jouko Lindstedt**씨가 전문인으로서 답변하고, 어린이에게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 방법과 경험에 대한 토론이 있어서 대회장 분위기가 매우 활기찼다.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마술사이면서 인형극 배우인 **Christoph Frank**씨가 지도하였다.

제 18차 IF는 **Magdeburgo**에서 연말쯤 개최할 예정이다.

주소: **Hans-Dieter Platz, Pf. 1148, DE-34303 Niedenstein, Germanio**

이메일: HDP@internacia-festivalo.de.

일본: 에스페란티스토 만명 시대를

일본 에스페란토 협회(JEI) 회장 **SIBAYAMA Zyuniti**씨는 기관지 **La Revuo Orienta** 신년사에서 현재 1400명의 회원 수를 만 명으로 확보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1965년에 도쿄에서 **UK**를 개최한 바 있지만, 일본에서 **UK**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 문제를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체코: 개칭 후에도 KAEST

체코 에스페란토 협회는 **UEA** 후원으로 캠페인 2000의 일환인 **Kolokvo "Apliko de Esperanto en Scienco kaj Tekniko"**(KAEST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에스페란토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과학 기술원에서 개최하였다(2000년 11월 10~12일).

3가지 주제 (새로운 천년에 즈임한 경제, 에스페란토 전문용어의 문제점, 일반적인 과학과 기술등)로 연이어 열린 분과회의에 21명이 토론자로 나오고, 11개국으로부터 41명이 참가하였다. 원탁회의에서 **KAEST**의 명칭 **kolokvo**를 **konferenco**로 바꾸고, 차기 모임은 2002년 11월 8~10일에 갖기로 확정했다. **IFEF** 주최로 실시하는 프라하 철도전문용어 세미나에 8명의 참가자들이 바쁜 일상생활로부터 탈피한 여유로움 속에서 철도 전문용어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했다.

헬레니즘: 헬레니즘 에스페란토회

Mato Spekujak씨의 주동으로 헬레니즘 에스페란토 그룹이 설립되고 홈페이지도 개설되었다. 전세계 헬레니즘 협회 규약인 헬레니즘 선언과 회지 **Hilelisto**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란다. 제 1회 헬레니즘 회담은 자그레브 **UK**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주소: **Ostarijska 8, HR-10000 Zagreb, Kroatio**

이메일: moto.spekujak@zg.tel.hr.

홈페이지: <http://www.geocities.com/hilelistarondo/>

우크라이나: 에스페란토 운동 급성장

지난해 **Kievo**에서 제 11차 우크라이나 에스페란토 대회를 개최한 우크라이나 에스페란토 협회(**UkrEA**)는 186명의 회원을 가진 규모면에서나 수준면에서 매우 성장한 단체임이 인정되었다. 곧 발행될 에스페란토-우크라이나 사전 편찬 작업과 함께 **Mikaelo Linekij**씨의 학교에서의 에스페란토 강좌로 **Kievo**에서의 에스페란토 보급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다.

우크라이나 회장으로는 **Volodimir Hordijenko**씨가 재선출 됐다.

사전 출판

* **이란**- 에스페란토의 선구자 **Aref Azari**씨의 편집으로 에스페란토-페르시아 대사전이 발행됐다. 테헤란에 있는 이란 에스페란토 협회(**IEA**)에서 45명의 에스페란티스토들이 모여 20년간 사전편찬을 위해 헌신한 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 **우크라이나**- **Vasilij Stanovic**씨의 도움으로 에스페란토-우크라이나 사전이 발행 준비중에 있다.

KEA 사무국 소식



1. 회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4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금년도 회비를 납부하심에 있어 감사드리며 아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과 회비를 조속히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분기(1-3월)에는 회비가 납부되어야 금년도 업무집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협회가 운영되고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4월호부터 회비 미납자에게는 본 회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 3월 24일 현재 2001년도 회비 납입자 명단

한지호 정동수 이은정 최유식 윤미영 김수정 김병찬 이명순 박홍귀 조명자남규호 박민경 라태량 이미경 정현주 안진심 최수영 박기옥 이순주 신영자 광구영 김시현 성상환 김수원 나익석 이보라 김영룡 이순화 박은영 김승아 강보연 서은아 백미성 임은순 방명현 김원식, 한현희

2. 기부금

대구에 계시는 김영명 박사께서 300,000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협회사무실 프린터가 잘 작동되지 않아 새로 구입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는 그 이틀날로 바로 송금을 해 주셔서 해결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이러한 보탬이 우리 운동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3. 행사안내

1) Zamenhof-memortago

일시: 2001년 4월 21일(토) 17:00-20:00(날짜변경)

장소: 협회사무실 / 지부는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

행사내용

{1}17:00-18:00 - 특강: 어록으로 본 **Zamenhof** 전기 (연사: 이종영 회장) {2}18:00-19:00 - 서울지부 활성화 대책협의

* 전국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서울 및 경기일원의 운동활성화를 위하여 회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참석하

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00-20:00- 저녁식사 및 친교

* 참가비 - 5,000원(단 학생 및 청년회원 3,000원)

2) Tago de Pioniroj 2001 (날짜변경)

일시: 2001년 5월 19일(토) 17:00-19:00

장소: 한글회관(미확정)

대상: 해평 이재현 선생(사전을 최초로 발행하신 분)

{1}추모집 발행

{2}제1회 우해 민족상 에스페란토부문 시상

{3}다과회

*당일참가비-5,000원 /다과회 및 추모집 제공

4. 전자 우편망 구축

{1}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회원과 그룹의 전자 우편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원들께서는 본인의 이메일주소를 협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는 지부별로 총무님께서 일괄 접수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이사회에서는 모든 소식이나 공문전달을 위해 이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편료도 줄이고 신속성도 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합시다.

5. 협회 아르바이트생(kromlaborantino)을 구함.

9시부터 오후2시까지 또는 하루종일 일할 수 있는 사무보조원을 구합니다. 보수나 사무영역에 대해서는 신청자와 개별 면담을 통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희망자 본인이나, 주위에 좋은 분이 계시면 소개바랍니다.

6. 정기학습소개

* **Rondo Amanta**- 매주화요일 10:00-12:00

교재: **Korea Antologio de Noveloj, Gvid.**: 이종세

* **Merkreda Studgrupo**- 매주수요일 오후 8:00-10:00

Gvid.: 방명현

* **Konversacia Kurso**- 매주 금요일 오후 8:00-10:00

Gvid.: 이장현

7. 중급반 모집

*매주목요일 오후 7:00-9:00 중급반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희망자는 협회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교재- **La Forto de la vero** -단편연애소설로 내용

이 아주 흥미있고 다양한 문체로서 어학능력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다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인 이상이 모이면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 교재 한 권만 충실히 공부한다면 완벽한 에스페란토 실력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도자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8. 에스페란토 가톨릭회 결성
에스페란티스토 가톨릭 신자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모임에 가입할 뜻이 있으신 가톨릭신자들은 연락바랍니다. 이미 몇 분이 뜻을 전해왔습니다
연락처: 가칭 **Korea Katolika Esperantisto**
이낙기 espernak@unitel.co.kr □

회원 동정

조성철씨 2월 21일 득녀

신입회원

진심으로 입회를 축하합니다!
대구회원: 박구영
대구시 중구 대신동1450번지 동서타운 2동 602호
011-814-1559 kky@tdtc.ac.kr □

2001년 주요행사

Aprilo 28(토)~30(월) 국제 에스페란토 연수회
(남강 에스페란토 학교 봄학기), 경북 청도
Julio 21(토)~28(토) 에스페란토세계대회(UK)
자그레보, 크로아티아
Julio 29(일)~**Aŭgusto** 5(일) 국제청년대회(IJK)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Aŭgusto 10(금)~12(일) 한중일 청년세미나리오
(KS) 서울
Aŭgusto 25(토)~26(일) 한국 에스페란토대회
경북 경산

제33차 한국에스페란토 대회 안내 2001년 8월25-26일, 경산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가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

참가비 송금은행: 대구은행 154-08-0070708 대구에스페란토(나의석), 연락, 문의: 대구시 남구 봉덕 1동 588-43 내외빌딩 4층, 한국에스페란토협회 대구, 경북지부 나의석 총무, 053-475-1887, 053-765-0881 (F), 011-9577-7345, Taaguesperanto@hanmail.net

(1) 내국인 (1개월 전까지 신청 - Email, 팩스, 우편)

(1) KEA회원

40,000원 (4인1실, 온돌방, 1박 3식 포함)

50,000원 (3인1실, 침대방, 1박3식포함)

KEA 비회원, 일반 KEA회원 + 10,000원

(2) 학생: KEA 회원 30,000원

(4인 1실, 온돌방, 1박 3식 포함)

KEA 비회원, 학생 KEA회원 + 5,000원

이린이 (6세 이하)는 무료

(3) 명예참가자: 30,000원

(대회에는 불참, 참가자 기록, 책자 및 기념품)

(2) 외국인 (사전신청, 참가비는 당일납부)

(1) UEA A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50,000원 (3인 1실, 침대방, 1박 3식)

(2) UEA B국: 중국, 월남 등

40,000원 (4인 1실, 온돌방, 1박 3식)

(3) UEA/ILEI 국제어학시험 응시 여부

시험관리비: 50,000 원

(4) 관광비: 경주 (불국사, 박물관, 나자렛 마을,
30,000원)

(5) 문예/웅변대회 참가 - 제목을 알려 주세요.

(6) 친교의 밤 참가 - 발표 내용을 알려 주세요.

(7) 희망하는 분과 모임 - 미리 알려주세요. □

제 86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

2001년 7월 21일-28일,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1. **대회장 Vatroslav Lisinski** (주 대회장),
컴퓨터학부(보조 대회장)

2. **주요 프로그램**

- 7월 21일(토) - 등록 및 친교의 밤(20:00)
- 7월 22일(일) - 개회식(10:00), 초보자 강습,
종교 행사, 크로아티아 민속의 밤
- 7월 23일(월) - 초보자강습, **ILEI** 어학시험,
만찬, 댄스
- 7월 24일(화) - 어린이대회 참관, 연극
- 7월 25일(수) - 전일 관광
- 7월 26일(목) - 크로아티아 시청 방문, 콘서트
- 7월 27일(금) - 경매, 차기 대회 설명,
국제 민속의 밤
- 7월 28일(토) - 폐회식(10:00)

3. **호텔 Esplanade** - 1인실 99 유로, 2인실 73 유로,
대회장호텔 (1 유로 = 약 1,000원)

Palace - 1인실 78 유로, 2인실 53 유로,
양 대회장 부근

Dubrovnik-1인실 51 유로, 2
인실 37 유로, 시내 중심부

숙소: **Fervojista**-철도원 숙소, 1주일 89 유로,
추가 1일 14 유로, 4-8인 1실

Selska - 1주일 109 유로, 3인 1실,
30세 이하

Cvjetno - 1주일 1인실 237 유로,
2인실 169 유로, 대회장 근거리

4. **관광**

대회전 관광:

A-1 Opatija kaj Istrio

- 대회 공식관광 14-21일, 2인실 482 유로

A-2 유람선 관광 - 14-21일, 2인실 425 유로

대회후 관광:

P-1 Dubrovnik - 대회 공식관광,

7월 28일-8월 4일, 2인실 525 유로

P-2 유람선 관광 - 7월 28일-8월 4일,

2인실 425 유로

전일 관광:

E-1 Plitvice호수 - 유네스코 보호지역, 66 유로

E-4 Zagorje - 고적, 성곽, 69 유로

5. **만찬** 7월 23일 18:00-21:00, 48 유로

6. **비자** - 한국인은 필요 없음.

7. **항공편**

Lufthansa

7월 21일 14:15 서울 출발, 프랑크부르크 경유,
22:10 자그레브 도착.

7월 28일 14:00 자그레브 출발,
프랑크부르크 경유,

7월 29일 11:00 서울 도착.
(특별요금 약 90만원, 날짜 변경 가능)

Air France

7월 18일 12:40 서울 출발, 파리 1박,

7월 19일 14:05 자그레브 도착.

7월 29일 09:15 자그레브 출발, 파리 1박,

7월 30일 09:55 서울 도착.

(특별요금 약 90만원, 파리 숙소
항공사 부담, 날짜 변경 가능)

8. **대회 참가비**

일반 **UEA**회원 - 150 유로(3월 31일),

그 이후 180 유로 (동반자, 청년 반액)

어린이대회 - 149 유로(3월 31일)

5월말까지 169 유로 (3일간 숙식, 교통포함) □

(한국에스페란토협회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습니다.)

1.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안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는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 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에스페란토를 보급하며, 나아가 한국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 김억 등에 의해 설립된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1986년 12월 사단법인화가 되었고, 1976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의 한국 지부가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기관지 "에스페란토"발간, 강습회 개최, 기타 국내외 각종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이 있다.

회비 납입처: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신한은행 623-05-000235

2. 입회 방법

에스페란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다. 연회비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협회 기관지를 받게 되며 각종 행사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

회비:

일반회원 45,000원 단체회원 45,000원
 학생회원 25,000원 가족회원 25,000원
 평생회원 675,000원 후원회비 성의껏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전국 지부 및 주요 단체

광주.전남지부(전화: 062-265-5927, 062-525-0520)

지부장: 김인홍, 부지부장: 조권현, 총무: 강보연
 주소: 500-827 광주시 북구 신안동 9-6번지 톨마루
 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18시 카톨릭센터 지하다방

대구.경북지부(전화: 053-475-1887)

지부장: 김시현, 부지부장: 정현조, 김원식, 총무: 박찬복
 주소: 705-021 대구시 남구 봉 1동 588-43 내외빌딩 4층
 정기모임: 매주 화요일 19시 지부 사무실

대전.충남지부(전화: 042-634-8532)

지부장: 박천식, 부지부장: 정명관, 총무: 박남미
 주소: 300-808 대전시 동구 대 2동 16 인정빌라 A-203
 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19시 지부 사무실

부산.경남지부(전화: 051-863-0003~6)

지부장: 이종현, 총무: 최향숙
 주소: 614-856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9-20
 지산간호학원
 정기모임: 매월 둘째주 토요일 18시 30분

인천지부(전화: 032-465-3143)

지부장: 홍성조, 부지부장: 원동국, 총무: 전경숙
 주소: 405-865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977-25
 문일여고내 홍성조

전북지부(전화: 063-243-2866)

지부장: 김양일, 부지부장: 운동원, 총무: 나영성
 주소: 561-231 전주 덕진구 인후1동 부익아파트 306호
 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19시 원불교 전주교당

충북지부(전화: 043-223-5713, 전승: 223-5745)

지부장: 손선기, 총무: 송호정
 주소: 360-041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75-13층
 정기모임: 매주 월요일 19시 지부장 사무실

수원지회(전화: 031-217-9962)

부장: 김영호, 부회장: 박영찬, 총무: 이영재
 주소: 442-71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4동
 성일아파트 201-1502(이길성)
 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천안지회(전화: 041-550-1640, 전승: 041-550-1604)

회장: 박종영, 총무: 김영명, 사무국장: 오연
 주소: 330-110 충남 천안 쌍용2동
 용암마을 APT 106-1161
 정기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경주포항 지회 (전화: 054-274-2403, 전승겸용)

회장: 이여환, 총무: 최윤희
 주소: 791-841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6-9
 ESPERO내과
 정기모임: 매월 3주 목요일 오후 7시

양평지회 (전화: 031-771-0664)

회장: 라태량, 부회장: 허희정, 총무: 송옥녀
 주소: 476-800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2리 269-23
 정기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전화: 02-717-6974~5)

회장: 김유영, 총무: 권혜영
 주소: 121-703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빌딩 1601호



2001년 대구경북지부 주요 행사 안내

1. **ESPERANTISTO** 고암 홍형의 선생 서거 기념 추모행사 : 4월 5일
2. 남강에스페란토학교 봄학기: 4월 28일(토요일)-29일(일요일)
3. 경상북도, KBS대구방송총국, 매일신문 후원
제33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경산에서 즐겁게!
8월25일(토요일) 13:00-26일(일요일) 13:30, 경산 새한연수원

에스페란티스토 홍형의
한국에스페란토협회 발행
선구자 홍형의 교수
추모문집
1999, 250쪽, 5,000원

여명의 소리
김영명 저
소아과 의사의
세상사는 이야기
1998년, 200쪽, 5,000원

에스페란토,
사랑의 국제공통어
KEA대구경북지부회원 번역
인류인주의 연구서
2000년, 150쪽, 5,000원